



보도	2024.9.20.(금) 석간	배포	2024.9.19.(목)		
담당부서	은행감독국 건전경영팀	책임자	팀 장	양유형	(02-3145-8050)
		담당자	선임조사역	안상현	(02-3145-8052)

'24.7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1. 개 요

□ '24.7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7%로 전월말(0.42%) 대비 0.05%p 상승 [전년 동월말(0.39%) 대비 0.08%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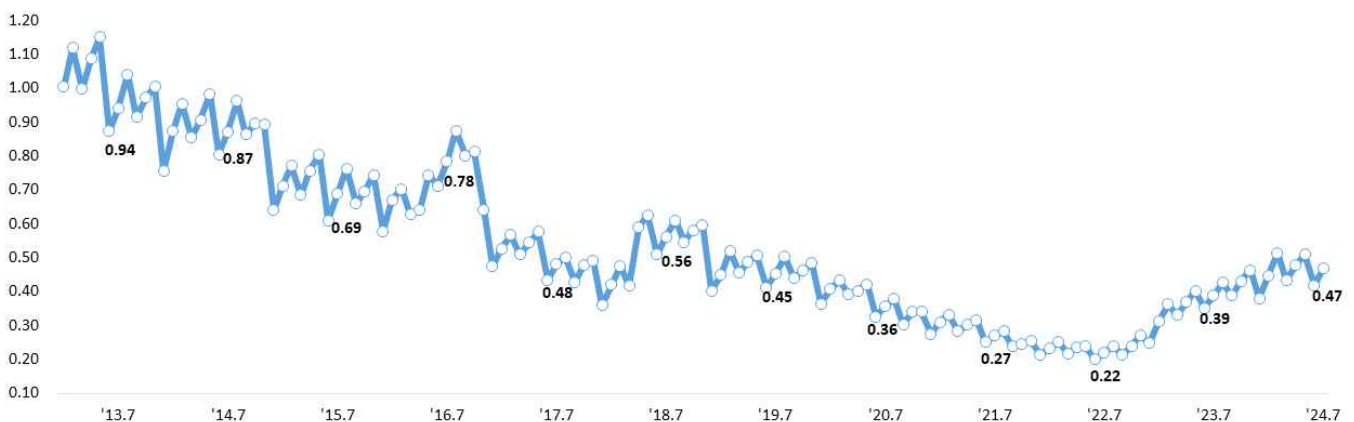
○ '24.7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7조원)은 전월(2.3조원) 대비 0.4조원 증가 하였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1.5조원)는 전월(4.4조원) 대비 2.9조원 감소

	('22.7월)	('23.7월)	('24.2월)	('24.3월)	('24.4월)	('24.5월)	('24.6월)	('24.7월)
* 신규 연체채권 규모(조원):	0.9	2.0	2.9	2.4	2.6	2.7	2.3	2.7
연체채권 정리규모(조원):	0.5	1.1	1.3	4.2	1.5	2.0	4.4	1.5
연체채권 증감규모(조원):	0.4	0.9	1.6	△1.8	1.1	0.8	△2.1	1.2

○ '24.7월중 신규연체율('24.7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4.6월말 대출잔액)은 0.12%로 전월(0.10%) 대비 0.02%p 상승 [전년 동월(0.09%) 대비 0.03%p 상승]

* 신규연체율(%): ('23.7) 0.09 → ('24.3) 0.11 → ('24.4) 0.12 → ('24.5) 0.12 → ('24.6) 0.10 → ('24.7) 0.12

원화대출 연체율 추이('13.1월~'24.7월)



※ 은행이 분기말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연체율은 통상적으로 분기 중 상승했다가 분기 말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

2. 부문별 현황

- (기업대출) '24.7월말 현재 기업대출 연체율(0.53%)은 전월말(0.46%) 대비 0.07%p 상승 [전년 동월말(0.41%) 대비 0.12%p 상승]
- 대기기업대출 연체율(0.05%)은 전월말(0.04%) 대비 0.01%p 상승 [전년 동월말(0.12%) 대비 0.07%p 하락]
 -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67%)은 전월말(0.58%) 대비 0.09%p 상승 [전년 동월말(0.49%) 대비 0.18%p 상승]
 - 중소법인 연체율(0.71%)은 전월말(0.58%) 대비 0.13%p 상승 [전년 동월말(0.51%) 대비 0.20%p 상승]
 -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61%)은 전월말(0.57%) 대비 0.04%p 상승 [전년 동월말(0.45%) 대비 0.16%p 상승]
- (가계대출) 가계대출 연체율(0.38%)은 전월말(0.36%) 대비 0.02%p 상승 [전년 동월말(0.36%) 대비 0.02%p 상승]
-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5%)은 전월말(0.24%) 대비 0.01%p 상승 [전년 동월말(0.23%) 대비 0.02%p 상승]
 -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0.76%)은 전월말(0.71%) 대비 0.05%p 상승 [전년 동월말(0.71%) 대비 0.05%p 상승]

국내은행 원화대출 부문별 연체율 추이

(단위 : %, %p)

구 분	연체율 시계열 ('13.12월~'24.7월)	'21.7월	'22.7월	'23.7월 (A)	'24.5월	'24.6월 (B)	'24.7월 (C)	증감	
								전년동월 (C-A)	전월 (C-B)
기업대출		0.35	0.24	0.41	0.58	0.46	0.53	0.12	0.07
대기업		0.37	0.14	0.12	0.05	0.04	0.05	△0.07	0.01
중소기업		0.34	0.27	0.49	0.72	0.58	0.67	0.18	0.09
중소법인		0.46	0.34	0.51	0.75	0.58	0.71	0.20	0.13
개인사업자		0.21	0.17	0.45	0.69	0.57	0.61	0.16	0.04
가계대출		0.18	0.19	0.36	0.42	0.36	0.38	0.02	0.02
주택담보대출		0.11	0.11	0.23	0.27	0.24	0.25	0.02	0.01
가계신용대출등		0.33	0.37	0.71	0.85	0.71	0.76	0.05	0.05
원화대출계		0.27	0.22	0.39	0.51	0.42	0.47	0.08	0.05

*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및 신탁대출금 기준

3. 평가 및 향후 감독방향

- '24.7월 연체율(0.47%)은 신규연체 증가(+0.4조원) 및 상·매각 등 정리규모 감소(△2.9조원)로 전월말(0.42%) 대비 +0.05%p 상승

* '24.7월 연체율은 '24.4월과 유사한 수준

구 분	'23.9월	'23.10월	'23.11월	'23.12월	'24.1월	'24.2월	'24.3월	'24.4월	'24.5월	'24.6월	'24.7월
연체율	0.39	0.43	0.46	0.38	0.45	0.51	0.43	0.48	0.51	0.42	0.47
전월 변동	△0.04	+0.04	+0.03	△0.08	+0.07	+0.06	△0.08	+0.05	+0.03	△0.09	+0.05

※ 통상 분기말(연말)에는 은행의 연체채권 정리(상·매각 등) 확대로 연체율이 큰 폭 하락하는 경향

- 중소기업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코로나 이전 장기평균*에 비해 여전히 낮은 상황

* 코로나19 이전 10년('10년~'19년) 평균 연체율은 0.78%

- 다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신규연체율이 예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 금감원은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상·매각 등)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 취약차주에 대한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차주의 채무부담 완화를 지원하도록 유도할 예정